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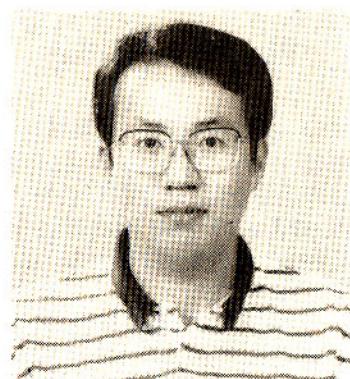
經濟人 手帖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運(?)

김영수 (경제학박사)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이 “①부모를 잘타고나서, ②독점을 형성하여, ③리스크레이팅을 하여, ④현금력을 동원하여, ⑤근검절약하여” 부자가 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여러가지 경로가 통계적으로 볼 때, 위에서 불여 놓은 번호순으로 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런 경로를 통하여 돈을 벌기에는 이 카나다리는 곳이 참 좋은 곳이라고 주장하였다. 자! 그다음으로 흔한 부자되는 경로가 바로 이 “運”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운’이란 것은 반드시 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운이고, 금광을 발견하는 것도 운이다. 좌우지간, 자신뿐이 아니라 타인까지 모두 포함하여, 인간이 계획하거나 노력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全部 이 ‘운’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환연하면, 결과에 책임을 지우거나 공을 돌리 수 있는 책임자로서의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결과는 바로 이 ‘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곰곰히 생각하여 보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하여도 이 ‘운’이란 것을 다 설명할 것 같지는 않다.

정말 이 ‘운’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 마치, 기계같이 1+1은 2식으로 채각하고 온 세상이 한치도 착오없는 시계처럼 돌아갔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숨이 막혔었을까? 그런데, 천만 다행히도 이 ‘인생’에는 ‘운’이라는 것이 있다. 즉, 경제학용어로 이야기하면, 스토캐스티시티 (Stochasticity)가 있는 것이고, 즉 ‘섬싱’이 있는 것이고, ‘유도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운’ 때문에, 큰 戰爭의 決判이 바뀌기도하고, 큰 부자의 運命이 결정되기도 한다. 물론 우리 衆生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운’은 큰 작용을 한다. 특히, 돈버는 사람들 부자되는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이 ‘財

運’이란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盡人事待天命’이라고 사람이 할 일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여기에 운의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즉,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노력을 하여 여러가지 준비를 하지만, 결국 일의 成敗에는 운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에 있어서 誠實하고結果에 대하여 겸손하여야겠다는 것이다. 자기보다 훨씬 돈 많은 사람을 만나도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고, 반대로 자기 보다 돈을 못벌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도 절대로 우습게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참, 말은 쉬운 이야기이다.

이 ‘財運’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자.

첫째로, 이 ‘운’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큰 부자들일 수록, 또 큰 회사의 높은 사람들일 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생계나 겨우면한, 돈도 별로 없는 동네 穷富들은 부자된 비결을 물어 보면 자신들이 돈을 번 과정을

‘노력’이니, ‘아이디어’니 우습지도 않게美化하는 것에 비하여, 이 큰 부자님들은 ‘단순히 運이죠!’라고 한마디로 잘라서 표현하는 것이 참 이상하게 느껴지곤하였다. 머리가 좋았고, 그 穷富들 보다는 배나 좋을 것이고, 노력을 하였어도, 배나 넘는 노력을 더하였을 것인데... 그 양반들이 주택 복권에 계속 당첨되었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하는 사업마다, 鬼神이 꼭을 할 정도로神奇하게 돈이 척척 와서 달라 붙었다는 말일까? 아니면, 역시 어느 정도 이상 돈을 벌거나, 전쟁에서 이길려면, 축복이 따라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平素에信心이 두터워야한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인생은 도리짓고 팽이라는 소리인가?... 처음에는 이 양반들이 무언가 정치적인 제스처를 쓰는 것인가도 싶었고, 이 양반들이 자기의 사업 비밀을 아르켜주기 싫어서 내숭을 떠나 싶었고, 또 자식들,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구나라고도 생각을 하였다. 하여간, 필자는 부자를 만나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를 캐물어보기를 즐겨하였고, 또 ‘부자와 운’과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오랫동안 궁금해 왔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자그마한 해답 몇개를 얻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죠!’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중대장이나 소대장급들에게 전투질하는 비결을 물으면,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이차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한 연합국측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이나, 이락전쟁에서 데저트힐드작전

을 승리로 이끈 슈와츠코프장군에게 그 승리의 비결을 물어보면, “Lord was on my side on that day!”라고 잘라서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리라. 위에서도 말한 ‘盡人事待天命’ 격언에서와 같이, 그렇게 큰 돈 번 사람들은 ‘사람이 노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즉, ‘人事’의 영역은 넘어서서 일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즉 보통 사람들은 ‘盡人事’ 하지도 않기 때문에, ‘待天命’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그 분들은 벌써 ‘盡人事’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待天命’ 하여야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고,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의 성패의 결정이 순전히 ‘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운이죠!’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결정적인 要素가 운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사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나, 노력을 사전에 충분히 하였다는 소리가 아닌가 싶다. 사실, ‘순 운이죠!’라고 말하는 것은 듣기기에 따라서는 아주 겸손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아주 자신에 찬말이다. ‘나는 인제, 운만이 결정하는 그정도 레벨에서 놀고 있다. 너는 언제 이 레벨로 올라올래?’ 하는 시건방진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즉, ‘순전히 운이죠!’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야 돈을 벌어도 큰 돈을 번다는 이야기는 ‘운’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정도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뒤집은 이야기라는 것이겠지...